

2024년도 제1호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사랑의 메<sup>+</sup>아리



교황청 재단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2코린 4,6)  
”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전화 02-796-6440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mailto: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베드로는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습니다(사도 2,37-40 참조).

회개, 내적 변화, 기쁨의 원천으로서의 세례의 재발견, 죄에서 돌아섬, 새로운 창조 안에서의 성장, 다양한 차원에서 죽음과 세속화 문화의 회피 등은 사순시기와 다가올 ‘성년(Holy Year)’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마련해야 할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신앙교리를 지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로만 축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의 변화와 존재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 베드로 사도의 대답은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이 대답에는 본질상 세 가지 임무가 포함됩니다. 즉 회개하기, 충실한 성사 생활로 은총 안에서 성장하기, ‘타락한 세대’와의 거리 두기입니다.

우선 ‘회개’하십시오! 논쟁하고, 갈등을 빚거나 맞설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화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존재와 행동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지나서 부활에 이르신 파스카 신비와 서서히 결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안에 살아 있는 실재인 세례를 각자 은총 생활의 무한한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거룩한 신비에 항상 온전하고 충실히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내적 생활에서 죄와 온갖 모순을 몰아내십시오

**“복음에 대한 믿음은 행동의 변화와 존재 전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희망과 위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주시는 “새로운 피조물”(2코린 5,17 참조)이 여러분 안에서 성장하게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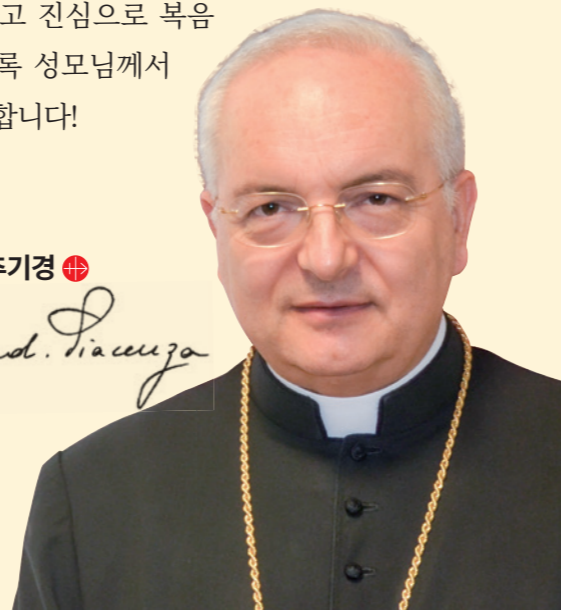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타락한 세대’란 분명 우리가 열정적으로 자신을 베풀어야 하는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을 거스르는 것, 즉 하느님과 그분의 율법을 거역하는 영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세상’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위협하거나, 타락한 매력으로 우리를 현혹하거나, 그럴듯해 보이지만 허무한 승리로 우리를 낙담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 부활로 드러난 파스카 승리로 이 ‘타락한 세대’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 16,33 참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른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자 추기경**

*Maurizio Kard. Piacenza*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현재 중동과 동유럽, 그리고 그 배후에서 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에 세계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지역에서 ACN이 날마다 직면하는 심각한 고난에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을 기억해 주십시오.

종종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은 모두 어디에서 오는 걸까?” “오 하느님, 왜 이들에게 고문, 살인, 죽음과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실존적 질문들은 간단하게 답하기가 어렵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답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테살로니카 2서에서 언급한(2테살 2,7 참조) “무법의 신비”는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며, 아무리 애를 써봐도 영원히 비밀로 남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까지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느님,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압도적으로 보이는 악을 극복할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통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본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죄, 죽음, 악이 궁극적으로 물리쳐지고 끝나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곁에 머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상처, 고통, 가장 잔혹한 고문, 예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랑의 메아리>를 통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나 지역이 현재 전쟁이나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을 찾고 헤쳐나가느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가톨릭교회(라틴) 총대주교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한창 분쟁에 휩싸였던 2023년 11월에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용서를 구할 때 완성됩니다.

님에게 가해진 온갖 악행, 심지어 죽음마저 마침내 하느님 아드님의 사랑으로 삼켜지는 모습을 목상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성모 마리아와 제자 요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을 염려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심정을 이런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 절망적인 믿음과 신뢰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고,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그 대답은 바로 부활의 승리입니다.

십자가 신비와 파스카 승리를 깊이 이해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골로 1,24).”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희망과 의미 탐구의 원천인 하느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해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고, 십자가의 희망과 위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돕습니다.

**ACN 지도신부  
안톤 레서**

*P. Anton Leser OP*



다. 용서 없는 진실은 복수의 구실이 됩니다. 진실에 용서가 동반되어야만 상황을 편견 없이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만남을 추구하고, 분열을 극복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제는 적이 아니며, 실제로 나의 형제입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 결정하려는 세대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전 세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하고 분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



# I. 복음화

## 아프리카, 이들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로마 8,35-37).” 오늘날 부르키나파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지하디스트 테러로 가장 심한 고통을 받는 국가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합니다. 서아프리카에 속하는 이 나라의 거의 절반이 극단주의자들 손에 넘어갔으며, 국민 2백만 명이 피난 생활 중입니다. 도로에는 지뢰가 묻히고, 다리는 폭파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지요. 많은 학교와 본당들도 강제로 폐쇄되었습니다. 테러범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력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사제와 교리교사들이 살해되거나 납치되었습니다.

북동쪽에 자리한 도리교구에 심각한 테러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헬기roman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제 성소자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현재 21명의 젊은이가 사제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구 회계 담당자인 이그나세 사와도고 신부는 올해에도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래 사제 양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저 운명에 굴복하고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 동반자들의 소중한 지원 덕분에 우리는 큰 확신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2,800,000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래 사제들이 다시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해도 될까요?



신앙의 힘: 부르키나파소의 난민을 위한 미사 아기를 안은 젊은 난민 어머니

우리는 도리교구의 사목활동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청년 사목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폐쇄하지 않은 본당에서는 많은 국내 실항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본당이 교회 활동을 강화해서 신자들이 영적 깨달음을 얻도록 격려하는 것이 교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신앙 안에 돈독히 머무를 수 있도록 29,0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한 신부가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들려줍니다. “우리는 악에 최종 결정권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효과적인 기도, 성사, 미사, 묵주기도로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 죽을 때, 악의 세력을 뿌리부터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의 기도와 기부로 후원해 주십시오! 🙏



## 아프리카, 영혼을 구원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있어야만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말라위의 에드워드 카만가 신부가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카롱가에서 교리교사를 위한 새 교육센터를 운영 중인 신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라위 북부의 카롱가교구의 면적은 12,000km<sup>2</sup>에 이릅니다.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거리가 멀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돌보는 사제 수는 24명에 불과합니다. 각 본당은 수십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자들이 직접 소박한 성당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행이 힘든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제들은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그중에는 그리스도



열심히 공부하는 예비 교리교사들(위)과 교육센터에 필요한 텃밭 작업(아래).

의 복음을 사방에 전파하기 위해 천막에서 지내는 사제도 있습니다. 이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을 다 충분히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카만가 신부는 그 결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피상적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어긋나는 미신적 관습에 매달리는 신자들도 많지요. 오지의 신자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교도 집단이 들어서기 좋은 토양이지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교회가 아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인 마틴 안웰 음툼부카 주교는 2022년에 교리교사들을 위한 교육센터 <시나이 산>을 건립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교리교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들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세례를 준비시키고, 신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기도 모임을 합니다. 이들은 신자가 족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고, 스스로 그리스도적인 가정생활을 통해 마을 공동체에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막중한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나이 산> 센터의 교육과정은 7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이 끝나면 예비 교리교사들은 본당에서 실제 경험을 쌓거나, 복음을 접해본 적이 없는 지역으로도 파견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교구로서는 센터 운영도 재정적인 부담이 큰 데다가, 아프리카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담은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건물 보수와 현재 예비 교리교사 17명의 교육비로 총 43,0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카롱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사람들: 카롱가의 새 교리교사들



아마존강 강변 마을에서 드리는 미사

## 브라질, 특별한 '심장 수술'

2005년부터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벨렝 두 솔리몽이스 본당을 돌보는 카푸친 작은형제회 사제들은 열대우림의 원주민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푸친 작은형제회의 집이 상당히 낡아서 그들도 다급한 도움이 필요한 처지입니다.



파울로 브라기니 신부와 티쿠나 부족의 여성

카푸친 작은형제회의 창시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동물들에게 설교하지는 않지만, 카푸친 신부들도 동물들을 만나는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늘 즐겁지만은 않지요. 이 지역에서는 독사, 모기, 불개미가 생활의 한 일부입니다. 이 본당에 속한 공동체 72곳이 모두 강변에 위치합니다. 사제들은 배를 타야만 이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악어, 강에 떠다니는 나무줄기, 갑자기 닥쳐오는 심한 폭풍우로 배 운항이 위험한데다, 종종 장소 이동에 하루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탈리아 출신의 파올로 브라기니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사는 은총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파올로 신부와 동료들이 말하는 ‘우리 형제들’이란 원주민을 가리킵니다. 원주민 대부분은 화려한 깃털 머리 장식으로 유명한 티쿠나 부족에 속합니다. 선교 사업의 시작은 험난했습니다. 카푸친 형제들은 티쿠나 언어를 배워야 했고, 15년이 넘도록 사제가 방문하지 못했으며 청년들 사이에서 알코올 의존증, 마약 중독, 폭력, 자살이 급격히 증가했던 본당도 찾아냈습니다.

이제 카푸친 작은형제회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수도회의 집은 선교의 ‘심장’이자, 무엇보다 수도회에 입회하거나 사제가 되고자 하는 청년 원주민들을 위한 성소 사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파올로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늘 지역 원주민들을 믿어왔습니다. 이들도 우리가 자신들을 믿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수도원은 무척 낡은 상태입니다. 목재는 썩고, 양철 지붕은 녹슬고 물도 샐니다. 여러 번 임시로 수리해보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빗물 통에 균열이 생겨서 깨끗한 식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선교 사업에 중점을 두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당장 조처가 필요합니다. 집 상태가 건강을 해치는 수준이어서 자주 병에도 걸리는 형편입니다.” 파올로 신부가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집도 너무 작습니다. 손님이 목을 때는 복도나 창고에서 잠을 자야 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집을 수리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57,5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선교 사업의 심장 수술’을 진행하는 카푸친 작은형제회에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 몽골, “다리를 놓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페터 후메뉴크는 중앙아시아에서 ACN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몽골을 방문하는 자리에 후메뉴크도 동석했습니다.

교황의 몽골 사목 방문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몽골에는 가톨릭 신자 수가 1,400명으로 극소수입니다. 교황 방문은 몽골 신자들이 보편 교회의 일부라는 걸 신자들 자신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변두리’로 가길 원하면서 동시에 ‘심장’으로, ‘중심’으로 들어간 셈이지요.

또한 교황의 방문으로 베트남, 중국, 태국, 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등 다양한 중앙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 교회의 대표들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참 독특한 경험이었고, 신자들의 기쁨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몽골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도, 또 가정이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특별한 성모상이 교황에게 소개되었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성모상은 15년 전, 선교사가 없는 몽골의 한 지역 쓰레기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성모상을 발견한 사람이 소중히 집에 모셔왔고, 후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번에 교황을 만난 겁니다. 오늘날 이 성모상은 몽골 수도의 대성당에서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걸 보여준 일이지요.



1 울란바토르 대성당 2 몽골이 간절히 기다려온 교황 방문  
3 교황 방문을 기뻐하는 울란바토르의 두 소녀  
4 조르지오 마렝고 추기경(왼쪽)과 페터 후메뉴크

조르지오 마렝고 추기경 서임으로 몽골이 세계 최연소 추기경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2년에 당시 48세에 불과한 이탈리아 사제를 추기경으로 임명한 일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변두리 지역’이 보편 교회의 심장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몽골어를 구사하는 마렝고 신부는 약 20년간 몽골의 외딴 지역에서 선교사로 일해 왔습니다. 이제 마렝고 신부는 보편 교회의 고위직 사제가 되었고, 그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황의 방문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다리를 놓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황은 사목 방문 중에 정부 대표자들과도 교류하면서 가톨릭 신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과 행동과 몸짓으로 보여줍니다. 교회는 지위와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이를 우선 하느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걸 교황이 보여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신뢰를 쌓게 됩니다.

ACN이 몽골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ACN도 교회가 소수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변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의 잠재력이 보편 교회를 위해 몽골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 II. 2024 사순 캠페인 : 우크라이나 특집

### 사목 "우리 희생이 맺은 결실"

전쟁 시작 이후, ACN은 미사 예물의 지원을 늘려 우크라이나 사제들을 돕고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사제 3,406명에게 약 33억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성사를 통해 힘과 치유를 주는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 시는 9개월 동안 점령당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인근 카호프카 댐이 폭파되어 홍수 피해와 식수 오염이 발생했지요. 그 외에도 헤르손은 전쟁 피해가 특히 심합니다. 성 바실리오 수도회의 이나티 모스카리우크 신부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하느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자비를 청합니다. 전쟁 시작 이후, 제 인생은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저녁을 맞이할 수 있을지,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아침을 보게 될지 불확실한 생활이었죠. 심리적으로 힘들었지만,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흠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제 마음이 용기로 가득 차게 되었지요." 이나티 모스카리우크 신부는 여전히 도시에 남은 사람들을 돌보고 기도하면서 일상을 계속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전쟁과 점령 시기를 보내면서 저는 더욱 하느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사람들을 위해 살면서 매일 제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은 지금까지 무사히 남아 있으며, 매일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례를 청하고, 고해성사나 혼인성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매일 25명에서 30명 정도 미사에 참석하는데, 그중에는 어린이와 젊은이들도 있지요. 점령 시기에 우리가 감내했던 희생이 이제 결실을 보는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나티 신부는 수백 명의 사람이 물질적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헤르손과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바실리안 사제들과 우크라이나의 다른 많은 사제에게 올해에도 미사 예물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해주시겠습니까? 🙏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성 바실리오 수도회 사제들



### 며칠은 전쟁을 잊어도 됩니다

2년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끊임없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가족과 함께 우크라이나 서부나 중부 피신하면서, 소중한 아꼈던 것들을 모두 그대로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전장에 나갔고,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들도 엄청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

잠시 전쟁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키이우 어린이들



회는 '하느님과 함께 하는 휴가'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며칠간 전쟁의 공포를 잊고, 기쁨과 친교를 체험하고, 함께 놀며, 기도와 미사를 통해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베르디체프의 성모 성지에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성찰의 날도 열립니다.

전쟁 시작 이후, 3,000명이 넘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이런 휴가 행사에 참여해왔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하느님을 찬미하는 어린이들

## 여성 수도자들

### 용기 있는 여성 수도자들이 날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 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미소 짓는 돈 오리오네 수녀회 여성 수도자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여성 수도자들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여성 수도자들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하르키우의 돈 오리오네 수녀회 여성 수도자들과 그들이 보살피던 한부모 어머니들이 처한 상황은 극적이었습니다.

카밀라 프리드리스제브스카 수녀가 회상합니다. "폭발과 로켓 공격에 우리는 모두 겁에 질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태울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린 사람들과 함께 9일 동안 지하실에 머물렀지요. 가장 어린아이는 태어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어요." 결국 여성 수도자들은 그들이



난민 아이들을 돌보는 테레사 노보시야들로 수녀

돌보던 62명과 함께 대피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하르키우로 돌아와 보니 수녀원은 심하게 파손되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수도자들은 인근 코로티치에서 지내게 되었

습니다. 이곳에서 여성 수도자들은 난민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한부모 어머니들을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아주 겁에 질린 아이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의 엄청난 고통을 목격하고, 그들의 극적인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힘든 경험이지만, 다들 이곳에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카밀라 수녀가 덧붙입니다.

크리비리호의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도 특히 정신적 충격을 받은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녀회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드론과 로켓 공격을 경고하는 사이렌이 계속 울려대고, 폭발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이 전쟁의 광기가 끝날 거라는 희망 속에서 삶은 계속됩니다. 하느님은 이 시대, 이 장소에 우리를 세우심으로써 하느님이 가장 높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느님은 안전이자 평화이십니다.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르키우-자포리자교구 내 여러 수도회의 여성 수도자 43명이 소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총 62,4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2022년 2월부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차량 41대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의 여성 수도자들도 긴급히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폴란드에서 온 이 수도회는 주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의 고아들을 돌봅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 여성 수도자들은 구호물자를 모아서 나눠 주며, 심리적 도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회 수도원장은 정기적으로 여러 공동체를 방문해야 하는데, 멀리 떨어진 곳을 기차나 버스로 이동해야 할

때는 힘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통행금지 시간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성 수도자들에게 새 차량 구매비용으로 21,800,000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



코로티치: 감사하게도 안전하게 지냅니다



## 신학생 빛과 사랑으로 어둠을 채우고자 합니다

키이우 근교 크나지치에 있는 그리스 가톨릭 성 삼위일체 신학교에서 55명의 젊은이가 사제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네 사람에게서 경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신학교 2학년생인 올레가 말합니다. “전쟁도 제 성소에 한몫했습니다. 사제로서뿐만 아니라 신학생으로서도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니까요.” 4학년생인 타라스도 동의합니다. “전쟁을 겪은 아이들은 더 빨리 어른스러워진다고들 말하지요. 우리 신학생들은 사제직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교회가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에게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타라스 자신도 전쟁 중에 생명이 위험한 여러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성소도 새롭게 규정되고 성장했습니다. 전쟁은 늘 고통과 두려움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 이 어둠을 빛과 사랑으로 채울 기회도 함께 줍니다.”

폭발, 항공기 공격, 포격 등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그는 말합니다. “지난겨울에는 신학교에 오랫동안 전기와 수도가 끊겼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도 끊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했지요. 우리 이 모든 일을 함께 견뎌냈고 그래서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25세 루슬란은 고향 멜리토폴이 몹시 그리지만, 점

령 상태여서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향의 본당이 그리운데, 이렇게 먼 거리도 기술을 이용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매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멜리토폴에 있는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기도에 참여하는데, 피난을 간 사람들도 우크라이나와 해외 곳곳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6학년인 멜레티 수사는 수도원 소속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제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두려움의 순간도 겪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수도원에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를 바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는 장차 사제가 되어 영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모두 필요한 곳에 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아주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라 말이지요. 그러나 우선 교육부터 마쳐야 합니다.

**55명의 젊은이가 사제의 임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학생 양성비로 1년간 64,000,000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타라스, 올레, 루슬란, 멜레티 수사와 그 외 신학생들이 빛과 사랑으로 어둠을 채우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

## 만남 “카푸친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카푸치노”와 기적

2023년 12월 초, ACN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에서 키이우의 카푸친 작은형제회로부터 전쟁 초기부터 겪어온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들이 매일 나자렛 예수 수녀회 수도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떤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지요.

“2022년 2월 22일에 이미 사람들 무리가 북서쪽으로 향하는 걸 보았어요. 그 이후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브와제이 형제는 침공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일 동안 누구도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 군인들이 근처 드네프르 다리까지 진군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카푸친 작은형제회의 부지에서 지내던 나자렛 예수 수녀회 수도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성 수도자들은 성당 지하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미 2주 동안이나 주택 지하실에 지냈던 체르니히프 출신의 피난민 20명이 찾아왔습니다. 키이우 수도원의 쿠스토스 세르히 원장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는 수도와 위생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대피 공간에서 생활하던 이웃들을 계속 모아들이느라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3월에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철수했지만, 국내 신향민 수용은 1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보후밀라 수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매일 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울타리 앞에 서서 우리가 주는 따뜻한 수프를 기다렸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가로등 선을 끌어다 썼습니다. 이제는 ACN 덕분에 두 수도 공동체에 비상 발전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정기적으로 미사와 교리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여성 수도자들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카푸친 작은형

제회와 수도원에 머물던 심리학자 덕분에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16명의 여성이 몸과 마음, 영혼을 아우르는 집중 재활을 위해 찾아옵니다. 이들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사망했거나 심지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시 삶의 용기를 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보면서 매번 놀랍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전방에 보낸 류드밀라 세르히이브나가 말합니다. 2014년부터 그녀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 속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들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대화와 심리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공동 기도와 그 후에 이루어지는 ‘카푸친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카푸치노 한 잔’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느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와 같이 어려운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그들은 이에 대한 진지한 대답을 기대하지요.” 카푸친 수도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회복은 허구입니다. ACN이 이곳을 떠난 지 이틀 뒤, 세르히 수사가 글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지금까지 보아온 중에 가장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목숨은 무사합니다. 문과 창문이 깨졌고, 주변 도로와 지하철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모래주머니들을 쌓아두었는데도 성당과 유치원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하자 우리는 물이 멈추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물은 맨 위 계단에서 그대로 멈추었어요! 기적이었지요!”

**여러분 덕분에 수도원, 성당, 수녀원 건립과 주방 시설을 지원할 수 있었고, 카푸친 작은형제회에는 미사 예물을, 여성 수도자들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지원은 계속됩니다. ✚**



1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보후밀라 수녀와 베르나데타 수녀  
2 새롭게 삶의 용기를 주는 브와제이 수사와 심리학자 류드밀라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넉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시편 34,19)

## 2024년도 ACN 사순 · 부활 캠페인

2024년 사순 시기에는 전 세계 ACN 지부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성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길 책자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010-7475-6440 문자 신청)

우크라이나와 성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459234**  
예금주 **(사)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2024년도 2호 소식지는 3월 말에 발행됩니다.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Aid to the Church in Need)는 2024년 사순 시기 동안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성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평화를 희망하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써 이 땅은 평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콜로 1,20) 우크라이나와 성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평화가 꽃 피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모든 전쟁은 그 이전보다 훨씬 나쁜 세상을 남겨놓습니다. 전쟁은 정치와 인류의 실패, 치욕스러운 항복, 악의 세력에 대한 패배입니다. 우리 모두 그저 이론적 토론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직접 접하고 어루만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261항

십자가의 길 신청하기

후원 문의하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일 2월 1일 ~ 3월 24일  
발송일 2월 중 일반우편 발송예정  
관련문의 02-796-6440, 010-7475-6440



www.churchinneed.or.kr  
02-796-6440, 010-7475-6440  
서울 중구 명동길80, 가톨릭회관 337호